

【논문】

이해와 오해, 그리고 몰이해*

—니체철학 번역방법에 대한 모색과 회고—

백 승 영

【주제분류】 현대철학, 번역학

【주요어】 번역, 해석, 이해, 오해, 몰이해, 섬세함

【요약문】 이 글은 니체철학에 대한 적절한 번역방법을 니체의 관점주의 속에서 찾아내는 실험을 한 후, 그것을 적용하여 한글판 니체 전집(KGW)의 번역원칙과 번역상황을 점검해보려 한다. 관점주의는 ‘이해’를 ‘오해’로, ‘번역’을 ‘반역’으로 규정하기에, 그 속에서 번역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시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관점주의는 동시에 ‘섬세함(Feinheit)’을 번역의 기준으로 요청한다. 그것은 ‘이해가 오해이고, 번역은 반역’이라는 필연적 한계에 대한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넘어보려는 좋은 의지’와 삶에 대한 실천적 관심의 지속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래서 이 시도는 니체 자신의 철학적 태도와 방식을 수용하여 그의 글을 번역하고 그 번역을 평가해보는 실험이며, 그렇기에 ‘소통’이라는 번역의 존재이유를 충족시키는 실험이다.

한글판 니체전집(KGW)이 제시한 번역원칙과 번역서들은 ‘섬세한 번역’의 한 경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주석의 최소화 원칙’은 섬세한 번역을 방해하는 방식일 수 있으며, 번역원칙을 따르지 않아서 발생하는 ‘번역서의 신뢰도 문제’는 섬세한 해석 자체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니체의 번역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 글은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2013.2~2013.12)의 지원으로 작성된 글이며, <번역비평학회>에서 발표된 것을 토대로 한 것이다. 본 글의 심사에 참여하여 향후의 ‘번역에 대한 진지한 반성 및 탐구’를 위한 풍부한 시사점을 주는 자료를 소개해주시거나, 니체전집 번역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모색을 요청해 주신 심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

I. 들어가는 말

국내의 인문학 위기가 ‘척박한 번역문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번역 학자들의 의견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¹⁾ 동·서양의 주요 고전들 중 상당수는 아예 번역되어 있지도 않고, 번역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배반’을 느낄 정도인 우리의 번역현실이 독자들에게 결국 인문학에 대해 좌절감만을 안겨 외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철학 영역도 여기서 완전한 예외는 아니다. 철학 고전 중에서 전집의 형태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니체가 유일하다. 우리 철학계가 고전 번역을 오랫동안 외면했었다는 증거다.²⁾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철학고전이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번역하기 어렵다는 것, 번역서는 연구업적에서 오랫동안 배제되었다는 것, (드물긴 하지만)외국어 능력 하나만으로 학문권력을 독점하고자 했다는 것 등등의 이유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번역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방법론에 대한 고찰 자체가 부족했다는 것이다.³⁾ 철학 번역이 어떠한지에 대한 탐구가 전제되지 않았기에, 인색했던 번역서들도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았고, 번역 자체의 의미와 중요성을 반성적으로 고찰할 기회도 많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번역에 대한 학적 폄훼는 이상한 일일 수 없으며, ‘철학의 위기’에 이런 번역현실이 일정 정도 기여(!)했다는 것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본’ 니체

-
- 1) 전성기(2013), 275~276, “번역서로 공부를 해 본 사람이라면 국내에 나와 있는 인문 사회 고전들이 얼마나 엉망으로 번역되어 있는지 누구나 절감할 것이다. 한국어 문장이 어눌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요한 개념어가 날림으로 옮겨져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허다하다. 원문의 뜻을 무수하게 왜곡한 범피적 수준의 번역서들도 허다하게 발견된다. 게다가 잘못된 번역서가 일단 나오면, 저작권 연한이 지난 책이야 다시 번역하면 되지만, 저작권에 걸려있는 책들은 재번역할 수도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 고명섭(2008), 37.
 - 2) 플라톤 번역의 현재나 칸트전집 번역기획(한국칸트학회2013)이 보여주듯, 최근에 활기를 띠고 있는 철학고전 번역상황은 그래서 매우 고무적이며, 번역학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좋은 예를 철학계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 3) 국내의 번역학자들이 시도하는 인문학번역의 방법론 찾기 작업은 그래서 중요하며, 철학계 역시 그 수행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인문학번역 방법론 시도의 예는 전성기(2013), (2009) 참조.

전집(Kritische Gesamtausgabe(=KGW))의 번역이 2005년에 완간되었다. 번역에 대한 본격적인 구상이 1998년에 시작되었으니 7년만이다. 니체의 저작은 물론이고, 학적 중요성을 지닌 유고도 거의 대부분 번역되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몇 안 되는 성과다. 그래서 이 번역 전집에 대한 검토와 평가는 니체철학 번역방법의 현재와 미래를 타진해보기 위해서나, 번역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위해서 필요하다.

본 글은 니체 번역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바로 니체의 관점주의(Perspektivismus) 속에서 찾아내는 실험을 한 후, 그것을 적용하여 위의 과제를 수행해보려 한다. 주지하다시피 니체 번역은 매우 곤란한 상황을 경험한다. 철학고전 번역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어려움 외에도, 니체의 글이 문학언어와 철학언어와 예술언어와 일상언어가 교묘하게 접합되어 있다는 점에, 이론이나 체계를 무시해버리는 매우 독특한 철학적 글쓰기를 사용한다는 점도 가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의 철학적 방법론인 관점주의 자체가 늘 ‘다양한 눈과 해석의 사용’을 요구하기조차 한다. 그래서 니체의 글에 대한 번역은 다른 철학고전의 번역이 갖지 않는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어떤 경우 ‘이것은 학술적인 철학번역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듣는다. 철학고전 번역이 가져야 하는 소위 ‘학적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니체 특유의 글쓰기 방식과 문체 때문에 발생한다. 반면 ‘이것은 니체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도 있다. 니체 글 특유의 생동감을 느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것은 ‘학적’ 번역을 추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렇다면 철학고전의 학적 품위를 지키면서도 니체 고유의 매력도 보여주는 번역의 방법은 없는 것인가? 니체의 글을 번역해 본 경험이 있는 누구라도 공감할 고민이자 질문이다. 관점주의 속에서 번역방법을 찾아내보려는 본 글의 시도는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이해를 오해’로 규정하는 관점주의에서는 ‘번역’은 곧 ‘반역’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오해이고, 번역은 반역’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인정, 즉 그 필연적 한계에 대한 ‘적극적’ 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섬세함(Feinheit)’을 번역의 기준으로 요청하기도 한다. 그래서 관점주의 속에서 적절한 번역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시도일 수도 있지만, 니체 자신의 철학적 태도와 방식을 수용하여 그의 글을 번

역하고 그 번역을 평가해보는 실험이며, 그런 한에서 ‘소통’이라는 번역의 존재이유를 충족시키는 실험이다.

II. 관점주의 속에서 니체 번역의 원칙 찾기

관점주의는 모든 유형의 인식과 사유를 무차별적으로 해석(Interpretation)으로 규정한다.⁴⁾ ‘정신과학은 이해하고 자연과학은 설명한다’라는 딜타이 이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사유모형의 이원적 구도는 거기서는 유효성을 상실한다. 그런데 니체가 말하는 해석은 ‘관점적 가치평가(Die perspektivische Interpretation)’다. ‘관점적’ 평가이기에 ‘힘에의 의지(Wille zur Macht)’라는 규제적 원리가 인식과정의 첫출발부터 그 종점에 이르기까지 지배한다. 달리 말하면 해석은 철두철미 인식자의 힘과 삶의 상승 전략의 소산인 것이다. 또한 그 전략이 반영된 ‘가치평가’이기에 해석은 인식자의 의미인식이자 가치인식이다. 여기서는 인식자의 힘상승과 삶의 고양에 ‘어느 정도 유용한지’가 측정된다. 그래서 사태에 대한 객관적 반영 같은 것은 인식론적 이상에 불과하다. 해석이 그런 것이라면 해석은 곧 오류다. 그래서 거기서는 ‘해석=오류=진리=참’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해석은 힘과 삶의 상승 전략 및 유용성 전략이 적용된 오류지만, 그 오류는 인식자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인식자를 위해 존재하는 ‘인식자’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오류와 진리라는 이분법은 해체된다. 관점주의의 이런 기본입장은 진리를 해석의 한 유형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진리는 이분법에 기초한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해석적 진리’라는 성격을 획득한다. 관점주의의 이런 성격은 ‘오해로서의 이해’를 제시하는 곳에서 선명하고도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된다.

4) 니체의 관점주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백승영(2011), 430-540 참조.

1. 해석적 이해로서의 오해

관점주의가 모든 인식유형과 사유유형을 해석으로 규정하기에, 이해라는 특수한 사유유형 또한 해석의 성격을 공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해석이 오류라면, 해석적 이해(Verstehen)는 곧 오해(Missverstehen)다. 그 결정적인 이유를 니체는 다음처럼 제시한다.

“이해는 기존의 것에 대한 언어로, 이미 알려진 것에 관한 언어로 새로운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⁵⁾

“이해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따라오는 상상작용과 추론작용이다. 무엇이 진짜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본 것에 의해서는 사실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 - 왜냐하면 어떤 것을 보면서 우리는 꾸며내고 추론하기 때문이다.”⁶⁾

이 두 글은 관점주의가 해석의 특징으로 주목한 것을 ‘이해’의 맥락에서 다른 표현방식을 빌어 제공하는 것으로,⁷⁾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의 과정은 ‘이해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을 전제하고, 그 과정은 “같지 않은 것을 같게 만드는(Gleichmachen des Ungleichen)”⁸⁾ 형태로 진행된다. 같지 않은 것을 같게 만드는 것은 미지의 것을 기지의 것으로, 낯선 것을 친숙한 것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이다. 비교하고 도식화하고 예측시키고 범주화하고 일반화하는 과정들은 모두 그 행위들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낯설게 다가오는 대상경험을 자신이 이미 경험했던 것으로, 자신에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친밀한 것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며, 그런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것을 기존의 것을 묘사해주었던 언어로 표

5) 『유고』 KGW VIII 3 15[90], 254.

6) 『유고』 KGW V 2 11[13], 344.

7) 관점주의의 주요 테제는 인간 인식의 해석적 성격 및 오류적 성격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오류라는 필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능동적 창조성을 담보한다는 인식과 진리에 대한 실용적-다원적 정당화다. 그 틀을 번역이라는 상황에 적용한 본 글은 ‘오해와 번역’이 갖고 있는 능동적 창조성을 정당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 대한 심사 의견 중 하나인 ‘오해와 번역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8) 『유고』 KGW VIII 1 5[65], 213.

현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이 수행되지 않으면 이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이해과정은 둘째, 힘에의 의지의 소산이다. 즉 ‘이해가능하게 만드는 의지’의 활동인 것이다. 낯설고 새로운 것에 직면하면 우리는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며, 이런 경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낯선 것을 낯설지 않은 것으로, 미지의 것을 기지의 것으로 정돈하는 작업이 수행되어, 낯선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해소함과 동시에 그것들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니체는 이런 작업의 장소를 의식적 차원에 국한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의식이전적 현상이기도 하며, 본능적이자 의지적으로 대상경험의 첫 출발부터 수행된다.

‘이해가능하게 만드는 의지의 활동’이 이해의 본질적 측면이라면, 이런 이해는 이해 대상에 대한 객관적 반영을 할 수 없다. 오히려 ‘같지 않은 것을 같게 만들면서’ 이해는 대상의 개별성과 차이와 특수성을 외면한다. 그래서 인용문처럼 ‘꾸며내는 상상과 추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작업은 힘과 삶의 상승 전략 및 그 상승을 위한 유용성 전략이 적용된 것이다. 그런 한에서 이해는 오해일 수 밖에 없다. 결국 우리는 이해를 한다면서 오해만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오해의 요소가 없는 이해에 대한 추구는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 힘에의 의지를 버리지 않는 한, 달리 말해 상승적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에서 말이다.

2. 이해와 해석의 섬세함, 섬세한 이해와 해석을 하려는 좋은 의지

해석적 이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런 인식상황은 비극적이다. 니체는 이런 비극적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불만도 어떤 의의도 그는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상승 의지의 산출물이며, 우리의 삶에 필요해서 우리 스스로 구성해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삶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삶을 원하기에 구성해내는 비극적 해석상황과 이해상

황. 여기서 해석과 이해의 이상적 상태는 무엇일 수 있을까? 해석과 이해의 비극적 상태에 대한 ‘허무적’ 수궁일 것인가? 니체는 정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는 이상적 상태를 ‘해석과 이해의 섬세함(Feinheit)이 지속적으로 추구되는 상태’로 생각한다. 여기서 ‘섬세함’은 대상의 ‘고유성과 개별성과 특수성이 외면되고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적극적 수용’은 이해와 해석의 필연적 한계에 대한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주목하려는 의지적 노력, 대상에 대한 실천적 관심의 지속을 내용으로 한다. 아래의 ‘좋은 날’에 대한 인용문은 이 세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누설하고 있다.

“이해되기는 어렵다. 해석의 섬세함을 원하는 좋은 의지에 대해 사람들은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좋은 날이 오면 사람들은 더 이상은 해석을 전혀 요구하지 않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오해를 위한 넉넉한 유희의 장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내 생각에는 오해가 몰이해보다는 더 나은 것 같다 [...] 내게는 오해가 몰이해보다는 더 기분이 좋다: 몰이해의 대상에 대해 사람들은 냉담하며, 냉담은 모욕이다.”⁹⁾

해석적 이상이 구현될 ‘좋은 날’을 말하는 위 인용문은 오류로서의 해석과 오해로서의 이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날,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인 해석과 이해가 가능한 날, 그래서 같지 않은 것을 같게 만드는 과정이 더 이상은 구동되지 않는 날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비관점주의적 상태를 ‘좋은 날’로 여긴다는 것은 니체답지 않다. 그런 의미의 좋은 날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삶을 위해서는 관점적 평가를 해야만 하는,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존재적-인식적)인간적 한계 때문이다. ‘좋은 날’에 대한 애매하고도 혼란스러운 표현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 그것은 또 다른 해석적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이해를 ‘추구하는’ ‘의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어한다. ‘또 다른 해석적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라는 것은 해석적 이해의 완전성 성취 혹은 차별성과 차이를 완전히 주목하는 이해의 실현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그런 실현의 불가능을 진정한 한계로

9) 『유고』 KGW VIII 1 I[182], 46~47.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해본다는 것이다. 그래야 최소한 의식적 차원에서라도 차별성과 차이가 조금이라도 덜 배제되는 해석적 이해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의지적 노력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있어야 한계에 대한 허무적 수궁이 아니라, 그 한계를 한계로서 인정하기에 수행되는 능동적 창조도 비로소 가능하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의지(Trotzdem-Wille)’를 니체는 비극적 이해상황이 안고 있는 긍정적 측면을 위해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날’은 그렇다면 ‘더 이상의 새로운 해석과 이해가 필요 없는, 완전한 해석과 이해가 이루어지는 날’이 아니라, 간과되었던 부분들을 최대한 주목하여 이해와 해석의 필연적 한계마저 극복해보려는 ‘좋은 의지’가 ‘지속적으로 구동하고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좋은 날에 대한 희망, 섬세함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적 노력’은 바람직한 일이다. 위 인용문이 제시하는 것처럼 두 가지 측면 때문이다. 첫째, 섬세한 해석과 이해를 원하는 ‘좋은 의지’를 지닌 ‘친구’들에게 ‘오해를 위한 넉넉한 유희의 장’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의지의 활동은 또 다른 오해의 장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것은 한편으로는 인간 한계에 대한 겸손한 인정을,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해석들의 열려져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오해가 몰이해(Unverständnis)보다는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오해는 우리의 삶의 관심이 반영되고, 우리의 삶에 대한 유용성 전략이 적용된 것이다. 몰이해는 그와는 반대다. 섬세한 이해를 위한 노력은 차치하고라도, 대상을 이해하려는 관심 자체가 없다. 그것은 대상을 자신의 삶과 연계짓지 않으려는 냉담의 표현이거나, 대상을 자신의 삶을 위해 사용하는 능력의 부재이거나, 중립성과 객관성이 가능하다고 믿는 독단일 수 있다. 혹은 자신의 삶을 위해 어떤 효용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이기도 하다. 그래서 해석자의 냉담은 대상에게는 ‘모욕’이며, 그런 모욕은 주체에게도 대상에게도 결코 생산적이지 않다.

이렇듯 니체는 비극적 해석상황 및 이해상황에서 확보될 수 있는 이상적 상태를, 해석과 이해의 ‘섬세함’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상태로 제시한

다. 이것은 해석의 불가피한 한계에 대한 ‘적극적’ 인정에 대한 요청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의지’ 및 대상에 대한 우리의 실천적 관심을 지속시키려는 의지에 대한 요청이기도 하다. ‘좋은 날’을 원하는 ‘좋은 의지’에 대한 요청말이다.

Ⅲ. 관점주의의 적용: 번역은 반역이지만, 반역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관점주의가 제공한 이해와 해석의 상황을 번역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번역 역시 이해과정이자, 해석과정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기존의 것에 대한 언어로, 이미 알려진 것에 관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이해라면, 번역은 이해의 대표적인 경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해가 오해인 것처럼, ‘번역은 곧 반역’이다. 반역이지 않은 번역은 없다. 하지만 반역이기에 번역이며, 번역의 정당성은 반역이기에 확보된다. 니체가 보들레르의 말을 빌려, “세계는 오해를 통해서만 조화를 이룬다.”¹⁰⁾ 라고 했던 것은 번역의 세계에서도 유효하다. 이런 상황은 ‘진정한 반역’이, 니체가 부정하려는 반역이 무엇인지를 누설한다. 그것은 번역을 전혀 하지 않는 무관심과 냉담의 경우이거나, 번역에 객관성과 절대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전자는 모욕이자 무능이며, 후자는 독단이다.

그렇다고 모든 번역이 동등한 위계를 갖는가? 관점주의자 니체는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이다. 관점주의의 틀 내에서 이해와 해석은 유용성 정도에 입각한 위계의 차이를 보이고, 그런 한에서 의미의 질서를 형성한다. 이것은 번역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번역의 위계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해석적 이상을 추구함’이 그 기준이 될 것이다. 번역의 대상을 ‘모욕’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관심으로 끌어 들여, 번역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섬세함을 추구하는 번역. 이것이 좋은 번역일 것이다. 물

10) 『유고』 KGW VIII 2 11[216], 327.

론 그런 번역이 번역의 특징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몰이 해와 냉담 같은 모욕, 즉 ‘진정한’ 번역은 아닐 것이다. 또한 니체가 아래에서 경고하는 ‘가면을 만드는’ 위험을 지닌 번역과도 차별화될 것이다. 그것은 모욕은 아닐지라도 피상적이다.

“깊이 있는 모든 것은 가면을 사랑한다 [...] 모든 깊이 있는 정신에는 가면이 필요하다: 아니, 그보다 더, 모든 깊이 있는 정신의 주변에서 계속해서 가면이 자라난다. 그 정신이 제공하는 개개의 말과 개개의 발걸음과 개개의 삶의 징후를 피상적으로 해석하는, 그릇된 해석 덕택에 말이다.”¹¹⁾

IV. 니체 번역의 기본원칙: 섬세한 번역

진정한 번역도 아니고, 가면 만들기라는 피상적 번역도 아닌, 섬세한 번역. 이것을 니체 글을 번역할 때에도 원칙이자 방법으로 적용해도 될까? 관점주의자 니체는 그것을 환영할 것이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다. 그의 글이 갖고 있는 독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이 관점주의의 수미일관성의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니체의 글은 내용상으로는 철학적이지만, 거기서 사용된 언어는 결코 개념적-이론적 언어가 아니다. 오히려 일상 언어에 가깝고, 맥락에 따라 다른 뉘앙스와 의미를 부각시키는 예술적 치장이 덧붙여진 것이다. 철학이 개념적 사유인 한에서 철학고전에 대한 번역은 개념들의 의미를 어떻게 고정시키고 확정시킬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인지를 먼저 고민한다. 그리고 일정정도 일관성을 유지한다. 그런데 니체의 언어는 이런 방식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예컨대 『순수 이성비판』의 경우 ‘감성’으로 일관적으로 번역되어도 무방한 *Sinnlichkeit* 는 니체에게서는 하나의 고정된 번역어를 가질 수 없다. 맥락에 따라 감성, 감각, 감각적 욕구, 관능성, 육감성 등의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고, 그런 차별점과 특수성을 집어내려는 섬세한 노력이 있어야, 맥락의 철학적 의미를 비로소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니체가 사용하는 문체는 섬세함에

11) 『선악의 저편』 40: KGW VI 2, 53~54.

대한 요청을 더욱 강화시킨다. 니체는 문체의 리듬과 속도가 갖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에 대한 알리바이가 바로 그의 글이다. 짧은 호흡과 간결함에서 나오는 밀도와 강도, 명쾌함과 신랄함이 형성해내는 활력과 경쾌함, 내면에 대한 직접적 표출과 은유와 환유에 의한 상상력 촉발의 교차적 재미, 공백과 반복이 주는 이완과 긴장, 다양한 억양과 톤이 구사해내는 감동과 힘 등이 그 속에 녹아있다. 그런데 그것들을 완전히 보여준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아무리 섬세한 번역이라도 말이다. 그것은 번역은 번역이라는 특징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체는 ‘문체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을 니체는 이미 잘 알고 있다. 니체의 다음 글은 바로 그 점을 잘 설명해준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그 문체의 속도(tempo)다: 문체의 속도는 종족의 특성에, 생리학적으로 말하자면, 그 종족의 ‘신진대사’의 평균 속도에 근거한다. 충실하게 의도된 번역이라도, 본의 아니게 원전의 격조를 더럽힘으로써 거의 위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원전이 갖고 있는 대담하고도 경쾌한 속도를, 말과 사물 속에 있는 온갖 위험성을 넘어서게 하고 넘어서게 돕는 그 속도를 함께 번역할 수 없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¹²⁾

이 글은 경쾌하고도 빠른 속도를 지닌 페트로니우스의 글을, 둔중하고도 지루한 속도를 지닌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지만, 번역 일반이나 니체의 글을 번역할 때도 그대로 적용가능하다. 문체는 니체에게 ‘문체 이상의 것’으로, 그것은－ 뷔퐁(Buffon)¹³⁾－ ‘인간 그 자체’에 대한 표현이다. 거기에는 개인의 특수한 성격과 개성, 그것들을 형성시킨 삶의 조건들이 녹아있다. 그래서 문체는 개인의 정신성의 표현이지만, 그의 신체(Leib)성의 표현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면 정신성과 육체성과 의지가 불가분적으로 얽혀있는 인간의 모든 것－니체는 이것을 ‘생리(Physiologie)’상태라고도 부른다－에 대한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 신체 전체가 보여주는 ‘신진대사’의 표현이 곧 문체이며, 문체의 속도는 신진

12) 『선악의 저편』 28: KGW VI 2, 42.

13) “Le style c’est l’homme même.” B.-F.L. de Buffon(1753), 73.

대사의 속도를 반영한다. 페트로니우스 문체의 경쾌한 속도는 그렇다면 그의 정신이 자유롭기에 가능하고, 그것은 다시 그의 신체 전체가 건강한 신진대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 물론 언어는 집단적 의사소통 체계이기에,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개인의 신진대사는 곧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신진대사를 표현한다. 그래서 니체는 문체의 속도를 ‘종족의 특성에, 종족의 신진대사의 평균적인 특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집단과 종족의 신진대사는 그들의 집합적 삶의 조건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특정 문체는 그 문체를 사용하는 개인의 정신성을 넘어서 그의 신체 전체의 특징, 더 나아가 그의 개인적-집합적 생존조건 전체를 이해해야 비로소 이해가능하고 번역가능하다. 이것이 독일어로 페트로니우스의 글을 번역하기 어려운 궁극적 이유다.

이런 어려움은 니체의 글을 번역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그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니체에게 냉담의 모욕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이상, 유치한 피상성을 피하고 섬세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니체 전집 편집위원회(정동호, 이진우, 김정현, 백승영)가 결정했던 번역의 지침은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V. 섬세한 번역을 위한 노력: 한글판 니체 전집의 번역 지침과 평가

<번역지침>¹⁴⁾

- (1) 번역대상은 Kritische Gesamtausgabe (=KGW)로 한다.
- (2) 핵심적인 개념들만 의미를 고정시켜 번역어를 통일한다.
- (3) 저서의 제목들은 저서의 의도와 내용에 맞는 번역어를 사용한다.
- (4) 니체의 주(원주) 외의 역자 주는 최소화한다.

14) 정동호 외(2006), 20.

1. KGW 한글 번역과 그 의미

니체에 대한 국내의 열기를 반영이라도 하듯 니체의 저서는 많은 번역본을 갖고 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번역본은 무려 22종이나 된다.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일이다. 전집 번역도 활발해서 휘문판 니체 전집도 있고, 청하판 니체 전집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니체 전집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KGW의 한글 전집 편집위원회는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앞서 제시했던 ‘섬세한 번역’이라는 원칙에도 맞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바로 유고 때문이다. 휘문판이나 청하판은 니체의 유고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청하판 전집은 『권력에의 의지』라는 번역서를 포함시키면서, 유고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지만, 그것은 아래에서 제시될 『힘에의 의지』라는 위작에 대한 번역이다). 물론 그 전집들은 번역의 상당수가 중역이라는 것도 문제시 된다. 하지만 중역이라고 해서 모두 니체 글이 갖고 있는 철학적 의미를 상쇄시키거나, 그 매력을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니체 전집의 새로운 번역은 중역이 갖고 있는 문제보다는 유고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KGW는 현존하는 니체의 유고들을 대부분 포함시킨, 니체 전집을 명실상부 대표하는 것으로서, 현대의 니체철학 연구는 이 전집을 토대로 진행된다.¹⁵⁾ 이 전집이 번역대상인 것이다.

그런데 니체 철학의 연구와 번역에서 유고가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니체의 유고는 일종의 사유일기다. 그 스스로 완성시켜 세상의 빛을 보게 한 저작들은 이 사유 일기에 독자를 위한 저술적-예술적 치장을 한 것이다. 유고는 저작의 발생과정이나 숨겨져 있는 의도와 내용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자료인 반면, 저작은 정돈되지 않은 유고의 소속을 해명해주고, 친절하게 설명되지 않은 유고의 이해를 돕는다. 이렇듯 유고와 저작은 서로 보완해주고 해명해주는 관계를 맺고 있

15) Kritische Studien Ausgabe(=KSA 1967ff)도 사용된다. KSA는 KGW의 문고판이다. KGW는 니체의 초기 유고와 후기 유고를 계속해서 출간시키고 있지만, 학적으로 의미있는 유고들은 I 1~VIII 3에 거의 다 수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은 학계의 잠정적 동의를 얻고 있다. 한글판 니체 전집 역시 VIII 3을 마지막 권으로 한다.

다. 그래서 니체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작과 유고를 동시에 살펴야 한다. 번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저작의 번역은 당연히 해당 시기의 유고들을 고려해야 하고, 유고의 번역도 마찬가지로 해당 시기의 저작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니체 특유의 은폐술과 가면을 벗겨내고, 맥락의 구체성과 철학적 의미를 상실하지 않으며, 그의 문체가 갖는 특징을 최대한 살려내는 섬세한 번역이 가능해진다. 둘째, 유고들 중에서도 더 많은 주목을 받아야 하는 유고가 있다. 『힘에의 의지』에 해당하는 1885~1888년 사이의 유고들이 바로 그것이다(KGW VIII 1, VIII 2, VIII 3). 『힘에의 의지』라는 책은 주지하다시피 20세기 최고의 위작이다. 임의적 편집과 자의적 삭감의 최고 진수를 보여준 그 책은 니체가 『힘에의 의지』를 준비하면서 작성해놓은 유고들을 자료로 하지만, 하인리히 괴셀리츠와 니체 여동생 엘리자베트가 편집해 낸 것이다(1906).¹⁶⁾ 그 책은 오랫동안 니체의 주저 ‘역할’을 했으며, 1960년대까지의 니체 연구는 그 ‘주저’를 포함한 판본들에 의거해 진행되었다. 따라서 『힘에의 의지』는 니체 철학에 대한—오랜 기간에 걸친—적절하지 못한 이해의 외적 조건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니체 철학과 나치 이데올로기를 연계시켜, ‘위험한 정치철학자 니체상’을 형성시킨 것은 그 대표적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이마르에 있는 괴테—실러 아르키브에 잘 보관되어 있던 니체의 글에 엄밀한 문헌학적 잣대를 적용해, 내용의 침삭 없이 연도순으로만 정리해 출판된 KGW는, 매우 큰 학적 의미를 갖게 된다. 거기에 수록된 후기 유고들은 니체가 실제로 자신의 주저에 포함시키려 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니체 후기 사유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KGW의 유고 발간 이후 니체 연구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 유고들에 대한 번역은 섬세한 니체 읽기와 섬세한 니체 번역을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하다.

16) 『힘에의 의지』는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1883~1885)의 4부를 완성한 직후, 자신의 주저로 기획했던 책이다. 하지만 3년 정도 지속된 니체의 시도는 1888년 여름에 최종적으로 포기된다. 이 책의 기획과 포기의 역사, 그리고 위작의 등장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백승영(⁴2011), 378~395; 정동호 외(2006), 137~168 참조.

2. 핵심 개념들에 한정시킨 번역어의 통일

KGW 한글판 전집의 두 번째 편집원칙은 니체의 철학용어들에 대한 번역의 통일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편집위원장 정동호는 이렇게 말한다. “통일을 기하여야 하는 핵심 개념이 아닌 경우, 번역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편집위원회에서 통일되어야 할 개념의 수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개념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는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밖의 개념의 번역은 역자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¹⁷⁾ 이 원칙에 입각해 니체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힘에의 의지, 위버멘쉬, 영원회귀 같은—‘핵심 개념들’만 그 의미를 최대한 반영하는 번역어를 찾고, 적절한 번역어가 없을 경우에는 음역하기로 한다. 이런 결정 역시 섬세한 번역을 위해서 적절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번역어의 무모한 통일 작업은 섬세한 번역을 방해하고, 핵심개념들에 대한 번역에 따라 니체 철학에 대한 ‘피상적’ 해석이나, ‘냉담’과 ‘몰이해’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Wille zur Macht를 ‘힘에의 의지’로 번역하고, Übermensch를 ‘위버멘쉬’로 음역한 것은 섬세한 번역을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좀더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1) 힘에의 의지(Wille zur Macht)

‘Wille zur Macht’는 니체 사유의 토대개념이자, 인간과 세계에 대한 니체의 거대담론을 구성해내는 결정적 요소다. 그래서 이 개념은 매우 신중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권력에의 의지’라는 번역어가 아무리 현혹적이더라도, ‘힘에의 의지’로 대체되어야 한다. 독일어 Macht는 ‘힘’과 ‘권력’ 두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 그래서 ‘세계열강’이라는 독일어 Die Weltmächte에서 Macht는 권력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Die Macht der positiven Gedanken에서 Macht는 (긍정적 사유의) ‘힘’이다. 하지만 니체는 Wille zur Macht라는 개념으로 권력 개념을 넘어서는 우주 전체의 ‘생명력’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 개념을 통해 유기체와 무기체, 인간과 자연,

17) 정동호 외(2006), 19.

세계와 우주 전체가 동일한 본성을 갖는 것으로, 거대한 관계세계를 형성하면서 생성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제시된다. 더 나아가 니체는 Wille zur Macht를 자연과 세계의 모든 현상과 인간의 행위 일반을 설명해주는 유일한 설명원리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기에 그 개념은 니체 철학에서 보편존재론적 의미를 확보하며, 니체 철학의 거대담론적 성격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니체의 글을 보면 Wille zur Kraft라는 용어가 같이 사용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Macht는 분명 힘(Kraft)다. 하지만 Wille zur Macht에서 Macht는 Wille 즉, 의지와 불가분적인 힘, 의지의 힘 그 자체다. 그것은 물리적 힘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니체는 물리적 힘의 ‘내부세계’라고도 말한다.¹⁸⁾ 이렇게 해서 Wille zur Macht가 니체 철학의 대표개념이 된다. 이런 대표성과 의미와 내용을 고려하면 ‘힘에의 의지’가 적절한 번역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정치적-권력적 의미로 그 개념이 사용될 때에는 ‘권력에의 의지’로 번역되어야 한다.

(2) 위버멘쉬(Übermensch)

Übermensch라는 개념은 한글 번역 자체가 곤란한 경우다. 그 개념이 사유복합체이자 복합개념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의 일차적인 의미는 ‘항상 자기 자신을 극복하려 의식적-의지적 노력을 기울이는 인간’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그것은 창조자, 자유정신, 해석주체, 주권적 개인, 주인 등 다른 개념들의 의미를 차용해서 구성된다고 보아야 한다.¹⁹⁾ 그래서 니체가 제안하는 인간의 건강성의 제 요소, 주권성-자유-책임-관계적 실존-지배권 등이 모두 위버멘쉬 개념으로 흡수된다. 위버멘쉬는 이렇

18) 『유고』 KGW VII 3 36[31], 287쪽.

19) 위버멘쉬 개념은 『차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시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다가, 후기로 갈수록 ‘주인’, ‘주권적 개인’, ‘좀더 고급한 인간’, ‘좀더 높은 인간’ 등의 개념으로 대체된다. 그래서 위버멘쉬를 니체가 제시한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이해하는 한, 위버멘쉬에는 ‘주인’, ‘주권적 개인’, ‘좀더 고급한 인간’, ‘좀더 높은 인간’ 등이 갖고 있는 속성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게 해서 니체가 희망하는 ‘건강성’을 갖춘 인간, 삶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대명사가 된다. 이런 복합개념을 한글 개념으로, 그것도 학술용어로 번역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본어 번역을 그대로 차용했던 ‘초인(超人)’은 위버멘쉬의 의미를 제대로 표현해주는 개념일 수 없다. 그것이 ‘모든 인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완전한 사람’, ‘인간의 불완전성이나 한계를 극복한 이상적인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마저 되돌릴 수 있다는 *superman*을 연상시킨다. 반면 자기극복의 의미를 살리는 ‘극복인’²⁰⁾의 경우는, 위버멘쉬가 갖고 있는 복합적 의미를 반영하기에는 협소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위버멘쉬의 모든 뜻을 담아낼 수 있는 한글번역어는 현재로서는 없다. 이런 경우 음역을 하는 것이 ‘가면을 만들어내는 피상성’만큼은 피하게 하는 최선의 방식일 수 있다. 영미권에서 80년대까지 사용되던 번역어 *superman*을 포기하고, *Über-mensch*를 음절대로 영어로 옮긴 *over-man*을 사용하거나, 번역을 포기한 채 독일어 *Übermensch*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3. 니체 저작의 제목 수정

KGW 한글판 니체 전집의 세 번째 번역원칙은 니체의 저작들의 제목에도 저작의 내용과 의도에 맞는 번역어를 찾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권력의 지』는 『힘에의 의지』로, 『서광』은 『아침놀』로, 『즐거운 지식』은 『즐거운 학문』으로, 『적그리스도』나 『반그리스도』는 『안티크리스트』로 바꾸었다. 『아침놀』의 경우, 그것이 아름다운 한글이라는 점 외에도, 이 책 속에서 어둠을 걷어내는 자유정신의 빛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몽의 빛을 보여주고자 했던 니체의 의도를 좀더 생생하게 느끼게 해준다. 변경된 다른 제목들 역시 니체의 저술 의도와 내용을 살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안티크리스트』도 마찬가지다. 독일어 *Antichrist*는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교의 배척자’, ‘반그리스도교인’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하지만 책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예수 친화적이며 예수 옹호적

20) 김정현(2006), 39.

이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범을 통해 그리스도교 교회와 사제를 비판하고,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의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 타진해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내용상으로 ‘그리스도교 교회의 배척자’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교를 창시한 예수에 대한 배척자는 아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나 ‘반그리스도’가 적절한 번역어일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내용을 고려해 ‘친그리스도’로 번역하는 것은 독일어 Antichrist에 대한 실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위버멘쉬와 마찬가지로 음역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4. 역주의 최소화

KGW 한글판 니체 전집은 니체 자신이 제공해 놓은 출처해명이나 부언 설명을 원주의 형태로 제공하고, 구체적 사실이나 밝혀져 있는 출처 등은 해설주로 제공하지만, 번역자의 추가 역주나 주해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학문 풍토상, 고전에 대한 번역에서 장황한 주석들을 제공하는 것이 통례였고, 지금도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동의한다.²¹⁾ 하지만 니체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니체와 독자 사이의 직접적인 맞대결을 방해하는, 그래서 ‘가면을 먼저 씌어버리는’ 위험한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동호는 그 이유를 다음처럼 말한다. “니체는 남다른 필력에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던 철학자였다. 그리고 그의 글에는 그의 삶이 배어있다. 그런 그의 글은 논증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선언적이다. 또 관점적으로 생각하고 글을 쓴 그는 다양한 관점과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니체의 이 같은 글에 주를 다는 것은 시나 소설에 주를 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독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니체를 읽는다. 그리고 편향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올바른 니체 읽기다.”²²⁾

니체가 문학적 글쓰기를 선보이고, 삶이 배어있는 철학적 문제제기 및 문제해결방식을 제시하며,²³⁾ 다양한 관점과 실험을 동원한 철학을 하면서

21) 번역학에서는 이것을 ‘연구번역’으로 이해한다.

22) 정동호 외(2006), 20.

자신의 글도 그렇게 읽히기를 바랬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바로 그 글 쓰기 방식, 삶이 깃들여있는 철학내용, 관점적 사유방식이라는 특징이 오히려 설명적 주해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그의 ‘모든 것’이 담긴 높은 산을 세르파 없이 오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니체가 결코 친절하거나 솔직한 철학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그의 철학은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헌에서부터 출발하여, 실증주의, 계몽주의, 염세주의 등의 당대 지성계를 섭렵하며, 여기에 자연철학을 넘어서 생리학이나 생물학이나 물리학 등의 자연과학적 지식도 흡수하고 활용하는 과감함이 특징이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영향을 받거나 수용한 사유들을 슬쩍 숨겨버리는 독특한 버릇이 있다. 솔직하지도 친절하지도 않은 그의 사유를 이해해내려면 어느 정도의 문헌학적 탐구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래서 역주의 최소화 원칙은 역주의 장황성 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니체의 글을 독자가 직접 자신의 관점으로 읽는 것은 관점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것이 몰이해보다 나은 오해이며, 좀더 섬세한 이해일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관점주의적 이해를 해치지 않는 주해작업이 요청되며, 그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VI. 니체 전집 번역의 의미와 섬세한 번역을 위한 제언

KGW 한국어 니체 전집은 국내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완간된 철학 전집이며, 그것이 가져온 직·간접적 효과는 뚜렷하다. ‘번역이 비록 반역이더라도, 번역하지 않은 몰이해보다는 생산적’이라는 니체의 입장을 입증이라도 하듯, 전집 출간 이후 니체 철학에 대한 철학계 내·외적 관심은—질적인 측면에서나 양적 측면에서—폭발적으로 증가했다.²⁴⁾ 아마도 독일

23) “나는 내 작품을 내 온 몸과 삶으로 쓰며, ‘순수하게 정신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유고』 KGW V 1 4[285], 500.

24) 철학내부에서는 물론이고 인문사회 분야를 넘어 예술계에 이르기까지 니체철학에 대한 연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니체철학 전문연구지인 『니체연구』만 보더라도, 니체전집 번역 이후 예술분야 연구가들이 제공해 준 성과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어리는 난관으로 인해 좌초당하지 않게 해주는 (일정정도) 신뢰할 수 있는 한글 정보가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니체 전집이 보여준 이런 효과는 철학고전 번역의 필요성을 고취시키는데에도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오로지 외국어 능력의 힘으로 지식내용을 독점하면서 자신의 학적 권위를 세우는 일이나, 외국 해설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일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니체 철학에 대한 섬세한 해석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철)학자들에 의한-학자들만의 담론, (철)학자들에 의한-학자들만의 학문 ‘권력’을 약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소박한 것일까?

그렇다고 니체철학 번역의 ‘좋은 날’이 온 것은, 니체가 원하는 이상적 상태가 구현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섬세한 번역에 대한 노력을 좀더 요청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번역의 신뢰도에 힘을 내는 경우가 있다.²⁵⁾ 많은 번역인력의 동원, 비교적 짧았던 번역기간, 그리고 번역이 갖고 있는 크고 작은 실수의 불가피성, 번역의 반역적 성격을 감안해도 용인될 수 없는 경우들이 눈에 띈다. 그것이 섬세한 해석을 위해 제시되었던 최소한의 원칙이 소홀히 되어 그런 것이라면 더욱 문제가 된다. 앞서 제시되었던 ‘섬세한 해석’에 관한 인용문이 그 한 경우다. 『유고』 VIII 1 1[182]에 수록된 그 인용문은 『선악의 저편』 27번에 약간의 내용상의 변화를 보이면서 수록되어 있다. 유고의 내용은 이렇다. “Es ist schwer verstanden zu werden. Schon für den guten Willen zu einiger Feinheit der Interpretation soll man von Herzen dankbar sein...” 반면 『선악의 저편』은 “Es ist schwer, verstanden zu werden”로 시작해서 “ich tue eben Alles, um selbst schwer verstanden zu werden?-und man soll schon für den guten Willen zu einiger Feinheit der Interpretation von Herzen erkenntlich

철학분야에서도 니체철학을 주요연구대상으로 삼는 전문연구인력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이데거나 헤겔철학 등 이미 자신의 전문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학자들이 니체 연구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경우도 있다. 유사한 변화는 대학외부에서도 감지된다. 니체의 일반독자들이 니체의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후, 자발적인 연구모임들이나 비전문가들에 의한 니체강의와 니체강연도 활발해지고 있다.

25) 박찬국의 번역비평(2006)도 바로 이런 점에 관한 것이다.

sein”으로 끝난다. 이 두 글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있다. “그것은 쉽게 이해될 수 없다. 어느 정도 해석의 섬세함에 대한 선(善)의지에 대해 사람들은 깊이 감사해야 한다.”(『유고』) “이해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 나는 정말이지 모든 것을 스스로 이해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가?—우리는 정말로 몇 가지 정묘한 해석을 해주는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해야만 한다.”(『선악의 저편』) 만일 『유고』의 해당 글을 번역할 때, 그것이 『선악의 저편』의 27번 글과 연계된 것이라는 점을 유념했다면, 그래서 저작과 유고를 연계시켜 번역한다는 원칙을 따랐다면, ‘그것은 쉽게 이해될 수 없다’라는 번역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쉽게 이해될 수 없다’는 번역은 또한 ‘무엇이’ 쉽게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서, 다음 문장과 내용의 연결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 뒤를 따르는 문장, “어느 정도의 해석의 섬세함에 대한 선(善)의지에 대해 사람들은 가슴깊이 감사해야 한다”는 불필요한 철학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여기서 선택된 ‘선의지’라는 번역어는 칸트의 도덕적 의지를 연상시킨다. 만일 니체가 칸트의 도덕 및 도덕적 선의지를 ‘망치를 들어’ 파괴한다는 점을, 그리고 니체 자신이 ‘선과 악’ 개념을 ‘좋음과 나쁨’으로 대체해버린다는 점을 유념했다면, 그런 번역어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독일어 ‘guter Wille zu... Interpretation’은 그냥 ‘해석을 원하는....좋은 의지’로 정당하게 번역될 수 있으며, 그것이 더 섬세한 번역이다.

두 번째 경우는 앞서 제시했던 ‘역주의 최소화 원칙’과 관련된다. 역주의 최소화가 오히려 섬세한 니체 읽기를 방해할 수 있기에, 그 원칙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위한 논의가 학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현 시점에서의 제안은, 니체의 저작과 유고 사이의, 그리고 유고들 사이의 지시 연관관계를 밝혀주는 작업과, 유고와 저작들이 사용하고 있는 글의 출처 및 수용의 지점을 구체적이고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문헌학적 작업을 진행하여, 그 내용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주해를 구성하고, 그것을 다음 판본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최소한의 제안이지만, 관점주의의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고서도 좀더 섬세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있을 것이다.

VII. 나오는 말: 번역은 반역이지만, 배반과는 다르다

니체번역의 방법을 니체를 통해 모색해보려는 실험과정 중에 소박한 메시지가 하나가 들려온다. 번역이 비록 반역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반역, 즉 배반과는 다르며, 배반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번역은 비극적 행위다. 아무리 충실한 번역이더라도 그것은 필연적으로 반역이다. 하지만 저자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위해 활용할 줄 아는 반역이기에 생산적인 행위다. 그러니 반역임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진정 조심해야 할 것은, 니체가 말하는 ‘정당하지 않은 반역’, ‘냉담과 몰이해’, ‘섬세하지 않은 번역’, 즉 ‘진정한’ 반역이다. 그것은 피상적인 ‘가면 만들기’이거나 ‘무능력’이거나 ‘나태’다. 그래서 배반이다. 저자에 대한 배반이거나, 번역자 자신의 ‘좋은 의지’에 대한 배반이거나, 혹은 그의 삶에의 의지에 대한 배반이다. 배반은 부끄러운 일이다.

투 고 일: 2013. 08. 02.
심사완료일: 2013. 08. 13.
계재확정일: 2013. 08. 14.

백승영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참고문헌

- 고명섭, 『번역출판의 질은 왜 개선되지 않는가』, <기획회의> 218, 『번역출판』 창간호 (2008), 32~40.
- 니체 전집, (책세상 2000~2005).
- 박찬국, <고전번역비평(23). 니체의 『비극의 탄생』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교수신문 (2006년 1월 2일)
- 백승영,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책세상 42011).
- 전성기, 『번역인문학과 화쟁적 학문하기』, 『번역학연구』, (2013), 275~300.
- _____, 『탐구번역론-하나의 인문학 번역론』, 『번역학연구』, (2009), 133~157.
- 정동호 외, 『오늘 우리는 왜 니체를 읽는가』, (책세상 2006).
- de Buffon, B.-F. L., *Discours à l'Académie, Française*, in: *Pages choisies*, (Librairie Larousse 1753).
- Nietzsche, F.,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KGW)*, G. Colli, M. Montinari (hrsg.), (De Gruyter Berlin · New York, 1967ff.).
- _____, Nachgelassene Fragmente, KGW V 1
- _____, Nachgelassene Fragmente, KGW V 2
- _____, Nachgelassene Fragmente, KGW VII 3
- _____, Nachgelassene Fragmente, KGW VIII 1
- _____, Nachgelassene Fragmente, KGW VIII 2
- _____, Nachgelassene Fragmente, KGW VIII 3
- _____, Jenseits von Gut und Böse, KGW VI 2

ABSTRACT

Understanding, Misunderstanding, and
Non-understanding:

To Search and Review Translating Method for Nietzsche's Philosophy

Baek, Sung-Young

The paper attempts to find an appropriate translation method for Nietzsche's philosophy in his perspectivism. Then it is applied to examine the translation rules and translated state shown i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complete works of Nietzsche (KGW). Because perspectivism regards 'understanding' as 'misunderstanding' and 'translation' as 'mistranslation,' it can be considered as a very paradoxical attempt searching for an appropriate translation method in his perspectivism. However, it simultaneously requires 'fineness' as a translation rule. It admits the inevitable limitation that 'understanding' is 'misunderstanding' and 'translation' is 'mistranslation,' Nonetheless it contains the will to overcome the limitation and the continuation of practical interest in life. Thus it is an experiment of translating his works and evaluating their translation by accepting his philosophical attitude and mode. Consequently it satisfies a *raison d'être* of translation, which is 'communication.'

The translation rules, which are provided and executed in the Korean translation of Nietzsche, may fulfill the 'fineness' requirement. However, 'minimal footnote rule' may be dangerous in that it hinders fine translation. The problem of 'translation credibility', brought about

by not observing the translation rules, casts doubt on the fine translation. Therefore it is time to make a place for discussion in order to achieve an ideal state of translation of Nietzsche.

Keywords: translation, understanding, misunderstanding, nonunderstanding, fineness

